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전민지
주소 25242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7년 4월 7일 금요일 | 15호

송호신문 창窓

2016학년도 제 5회 학사학위 및 제 16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우리대학교는 지난 2월 16일 11시 월계관에서 '2016학년도 제5회 학사학위 및 제16회 전문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학위 4명, 전문학사학위 309명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에는 이기평 총장, 한규호 횡성군수, 조태진 전 횡성군수,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김은숙 횡성군의원, 진기엽 강원도의원, 윤상용 횡성고등학교장, 이영준 횡성우체국장, 박종태 NH농협은행 횡성군지부 지부장, 정명철 송호대학교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도, 학사경과보고, 학위 수여에 이어 명예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졸업식사, 격려사, 내빈축사, 교가제창, 폐회사 식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색지원 업무를 마치고 도소방본부로 복귀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故 이은교(간호과, 강원도소방본부 1항공구조대 소방교)학생이 명예졸업장과 추모패를 받았다. 이선영(치위생과), 박해숙(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전체수석으로 성적우수상을 받았으며, 강원도지사상 김하은(유아교육과) 학생 외 14명이 각각 특별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김복원(사회복지과, 총학생회장) 학생, 조현진(관광대명리조트과, 총학생회 부회장) 학생, 신재영(사회복지과, 송호대학교 신문사) 학생, 김진찬(스포츠레저과) 학생, 염예진(치위생과) 학생, 김민지(호텔외식조리과) 학생이 수상했다.

강원도지사상을 받은 김하은(유아교육과) 학생은 "대학을 졸업하면 섭섭한 마음보다는 그저 시원한 기분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며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이기평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은 대학생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한 분야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었다"며 "나는 여러분의 모교 총장으로서,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 선배이자 동료로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희망과 성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민지 기자

2017학년도 제 18회 신입생 입학식



우리대학교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월계관에서 2017학년도 제 18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순은 신입생 입학 선서,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교수 소개, 교가 제창, 폐회사 순으로 이어졌다.

간호과 박세원 학생이 전체수석상, 뷰티케어과 채명희 학생이 전체차석상을 받았으며, 학과수석상은 관광(대명)리조트과 채희수, 사회복지과 윤준영, 유아교육과 장현경, 뷰티케어과 김소희, 호텔외식조리과 황대근, 보건행정과 민경주, 간호과 김혁기, 방사선과 김주영, 임상병리과 박소현, 치위생과 최성훈, 스포츠레저과 최종희 학생이 수상했다.

우리대학교 이기평 총장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구좌를 기탁하는 방식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천사장학회장학금'은 관광(대명)리조트과 정호준, 호텔외식조리과 주현아, 호텔외식조리과 최연식, 스포츠레저과 성상경, 방사선과 정택은, 치위생과 김소희, 간호과 윤아름 학생이 받았다.

한편, 입학식을 마치고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한가람 기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돼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은 대학 비진학 고등학생 및 미취업 청년, 정년 은퇴자 등 취·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10개 시·군 단위사업 중 최대 지원 금액인 2억여 원을 확보했다.

작년까지 총예산 2억65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취·창업률 60%로 2015년부터 2년간 각각 사업평가 S, A등급의 높은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횡성한우 특화메뉴, 부산물 가공, 식육처리기능 3개 과정으로 과정별 100시간씩, 15명 총 300시간, 45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취·창업 활성화 및 횡성한우 특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람 기자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산학협력협약 체결



우리대학교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송호관 세미나실에서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횡성 지역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종사자의 평생직업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기평 총장, 김익홍 사무처장, 김나영 교학처장,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내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인성함양 및 미래인재 개발과 현장실습참여 협조, 지역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협력사업 정보 교류, 학술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과 기타 양 기관에서 협의하는 사항 등이다.

이날 이기평 총장은 "대학의 교육인프라 제공을 통해 지역 아동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복지 증진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전공봉사동아리 학생들은 전공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재능 기부로 쿠키를 구워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전달했다.

한가람 기자

'강원도 관광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 조리부문 수상

- 대·동·동 우리가 메달 사냥꾼이다 -





지난 2016년 11월 1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돔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도 관광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조리부문 대상과 동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장수훈(호텔외식조리과 2)외 5명의 학생들이 학생부 조리부문(양식)에서 대상과 동상을 차지해, 우리대학교가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원형·이정빈 학생 팀은 에피타이저로 홍시젤리와 연어그라브락스, 메인 요리로 포도소스를 곁들인 횡성한우 스테이크, 디저트로 래핑턴케이크와 레몬커드를 선보였다.

동상을 수상한 1학년 김경태·최재영 학생 팀은 에피타이저로 오감자극 브루스케타, 메인요리로 푸아그라치킨무스와 오렌지 폼, 디저트로 삼색과일무스와 홍차를, 1학년 장수훈·정산 학생 팀은 에피타이저로 새우콩소메, 메인요리로 참깨메쉬와 한우롤, 디저트로 3가지 맛의 에클레어를 선보였다.

대상을 받은 이원형 학생은 "이번 대회까지 두 번의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역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요리사에게 큰 난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즐겁고 행복하다"라며 "미래 목표인 총주방장 자리를 위해 지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공부 할 것이며 외국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동상을 받은 장수훈 학생은 "교수님께서 애써주셨고, 처음 출전하는 대회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서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기에 수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진 기자

임상병리과, 서울대학교병원 '2017 실습 학생 워크숍'에서 최우수상!



지난 2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주관한 '2017년도 실습학생 워크숍' 발표대회에서 우리대학교 김성신(임상병리과 3)학생이 최우수 발표자로 선정됐다.

본 대회에는 전국 47개 대학 임상병리과 재학생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김성신 학생은 '혈액은행의 수혈 부작용'이라는 주제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혈에 대한 부작용을 바르게 인식하고 안전한 수혈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발표해 최고점을 받았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성신 학생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영광을 임상병리과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임상병리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상병리과 최우순 교수(교수학습지원센터장)는 "전국 47개 대학 임상병리과 실습학생들 중 김성신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대학과 임상병리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수상으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간호과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



우리대학교 간호과 졸업예정자 36명 학생들이 지난 1월 2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한 제57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우리대학교 간호과는 이번 국가고시 전국 평균 합격률 96.4%에 비해 높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2015년 100%, 2016년 93.3%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위해 전임교수들과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 집중 특강을 진행했으며, 방과 후 자율학습과 실전에 대비한 모의고사 등으로 1대1 맞춤형 학습지도 등을 꾸준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미정 간호과 학과장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우수 간호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100% 합격률은 우리 학생들의 열정어린 땀의 결과이다.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혜진 기자

횡성 '약용작물 전문가 양성' 과정 열려…

– 약용작물산업관리사, 약용작물 발효, 농촌체험, 맛평가사 과정 등 지역 농업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다–



우리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지난 1월 23일 지역사회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및 전통·문화에 기반한 韓(한) 브랜드 전문 인력양성 목적으로 '횡성 약용작물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강했다.

약용작물 전문가 양성 과정은 한국능률협회, 한국약용작물교육협회와 협업으로 지역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지역 농업인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소득증대에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본 과정은 ▲산업관리사 과정 ▲약용작물 발효 전문가 과정 ▲농촌체험 전문가 과정 ▲맛평가사 양성 과정으로, 69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각 과정별로 45시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채용식 평생직업교육대학장(관광대명리조트과 교수)은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지역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韓(한) 브랜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창업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지역내·외의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이력관리와 대학의 학점 인정을 통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하여 지역대학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생직업교육대학은 2017년도 제1회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교육생 접수를 받고 있다.

전민지 기자

뷰티케어과 '제 11회 강원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서 15명 수상



지난 11월 2일 14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 11회 강원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리대학교 뷰티케어과가 5개 부문, 15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커트 2명(금상 곽혜련, 은상 박민지), 창작펌 3명(금상 곽혜련, 은상 이다윤, 동상 성예림), 펌(9등분), 와인딩 6명(금상 성예림, 은상 최연호, 동상 박정현, 최유미, 창작상 함지선, 지승언), 블로우드라이 3명(은상 석유진, 동상 최유미, 창작상 신민혁), 네일 기본 케어 3명(은상 김지현, 창작상 홍예림, 안나영)의 학생들이 수상했다.

강원도지사배 학생부 전체 종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곽혜련 학생은 강원도 학생 대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곽혜련(뷰티케어과 2) 학생은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기쁘다. 밤늦게까지 연습을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뷰티케어과 학과장 이명희 교수는 "뷰티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토탈뷰티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수업과 NCS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노력이 매년 좋은 성과로 돌아오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신혜진 기자

NCS 현장중심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최



우리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사업단이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NCS 현장 중심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본 프로그램은 250여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날은 인성 함양을 위한 인문학 초청 특강, 인·적성 및 심리검사와 리더십 향상 레크리에이션 등 ▲둘째 날은 학과 전공 이해 특강, 직업기초 및 전공수행 진단평가,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 특강 등 ▲마지막 날은 건전한 대학생활 및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한 특강,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기숙사 신청, 학사일정 및 제도 설명회, 교육만족도 조사와 학과별 안내사항 공지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평생직업교육대학 채용식 학장은 "신입생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하루빨리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학과 전공 이해를 위한 학과 프로그램 특강을 통하여 학과의 특성을 이해함은 물론 전공과 관련된 미래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가람 기자

치위생과 봉사동아리,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방문하다



우리대학교 치위생과 'unicum' 봉사동아리는 지난해 11월 25일 횡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횡성 관내 장애인 및 노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치관리 및 세척과 잇몸 마사지, 구강 건조증 예방 등 구강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구강교육 봉사활동 동아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횡성군 지역주민들의 구강보건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창설되었다. 이들의 지역봉사활동은 2015년도에 이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치위생과 2학년 유혜원 학생은 "교수님들로부터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구취측정 등)을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고 보람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치위생과 학과장 김민아 교수는 "평소 구강관리가 어려운 인지능력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전문가 칫솔질 및 불소도포를 통해 열악한 구강환경을 개선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센터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군민들에게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unicum'은 2월 23일 횡성군 노인 전문 요양원에 방문하여 잇몸 맛사지 등 구강 건강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혜진 기자

호텔외식조리과, 신입생 대상 전공특강 개최



호텔외식조리과는 지난 2월 13일 제과제빵실에서 재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참여하는 전공특강을 개최했다.

이는 재학생을 포함한 신입생 이준모 외 16명의 학생들이 호텔외식조리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미리 체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호텔외식조리과 정기순 교수의 제빵수업 중 '밤식빵과 우유식빵 만들기'였으며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빵 만들기에 참여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최재영(호텔외식조리과 2) 학생은 "처음에는 행사에 참여하기 싫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후배들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처음 수업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서 감회가 새로웠다. 이번 기회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어 기뻤다"고 전했다.

신입생 정주웅(호텔외식조리과 1) 학생은 "호텔외식조리과는 어떤 분위기로 수업을 할지 궁금함과 긴장, 설렘을 갖고 수업에 임했다. 교수님과 재학생 선배들이 함께 하여 더 의미가 있었고 수업의 내용도 쉽고 재밌게 진행돼서 매우 흥미로웠으며 정규 수업시간이 기대된다. 앞으로 1학년이 지나기 전 일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정기순 교수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빵 만드는 것을 보니 무척 훈훈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생들이 만든 우유식빵과 밤식빵은 새 학기 준비로 바쁜 교학처와 각 부서 교직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진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멘토&멘티 체결식



지난 3월 17일 (금) 우리대학교 창조관 식음료 실습실에서 제5회 관광(대명)리조트과 멘토&멘티 체결 서약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1학년 대표 김민지 외 33명, 2학년 대표 이정무 외 22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각 대표의 선서, 멘토&멘티 카드 및 선물 증정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멘토·멘티로서 바람직한 역할과 올바른 대학 문화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했다.

관광(대명)리조트과 이덕원 학과장은 "멘토&멘티 체결식이 어느새 5회를 맞이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서로 돕고 신뢰하며 졸업 후에도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두터운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가람 기자

교내 취업박람회 개최

지난 12월 1일 우리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재학생 및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교내취업박람회는 구직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인근 고등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의식 고취, 취업 활성화, 직업탐색, 관심 산업체와의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창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연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인근 고등학교에서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학과) 홍보를 하고, 구직 희망 고교생 및 청년들에게는 취업컨설팅과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춰 집대성된 취업 기회의 장이 됐다"고 전했다.

전민지 기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 '예지원' 정유년을 맞이해 새 단장을 하다 –

지난 겨울방학 동안 우리대학교가 7억5천여 원을 투자하여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를 새롭게 단장했다.

여자기숙사는 냉·난방기를 재설치하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 했다. 남자기숙사는 대규모 공사로 기존의 3인1실로 사용하는 방에서 4인1실로 변경하여 벽을 허물고 평수를 넓혔다. 또한 책상을 비롯한 침대와 옷장 등의 가구를 새로 교체하고, 각 방에는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다. 기숙사 입주자들은 새롭게 탈바꿈한 예지원을 보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새롭게 리모델링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숙사 비용이 인상된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인상을 논하고 있었지만 승인되지 않았던 것이며 그동안 미처 인상되지 못한 금액을 현실화시킨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추가적 기숙사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진 기자

만학도를 소개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
학문은 몸의 보석과도 같으며, 학문하는 자는 세상의 보배와도 같다. – 명심보감

우리대학교에는 학업에 열정을 가지고 17학번으로 입학한 만학도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만학도는 '나이가 들어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이렇듯 배움이란 정해진 나이가 없으며, 평생교육차원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만학도는 배우는 입장에서 일반 학우들과 같다. 여러분 주변에 만학도가 있다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인생에 녹아 있는, 또 다른 배움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기를 바란다.

서 주 영 (유아교육과 1)



1.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으로 입학한 서주영입니다. 나이는 39세이고 올해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해서 제2의 인생을 막 시작했습니다.

2. 송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2015년에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받기 위해서 송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올 3월 초에 횡성으로 이사 와서 계속 일을 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승급교육 당시의 교수님들 강의를 떠올리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로서 보수교육과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더라도 이원화되어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한계를 느껴 교사로서 전문 교육을 받고자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찾았습니다.

3. 유아교육과에 어떤 뜻을 품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온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졸업하고 나서의 목표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교사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으로써 존경받아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더 교육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맞는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경험과 기회의 제공자로서 관찰을 하고 아이들의 강점을 키워줄 수 있도록 아동 발달, 심리 등의 공부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하기보다는 부모교육,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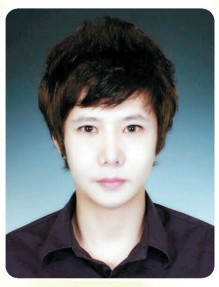
4. 같은 길을 걷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유아교사에게는 "~할 것이다" 또는 "~해야 한다"와 같은 사회적인 기대관념과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고,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생각하며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단순한 전공 이론 공부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투자해서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교에 입학하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송호마일리지' 장학 사업의 배점에 맞춰 한자, 컴퓨터 등의 자격증 공부를 몇 가지 시작했습니다. 벌써 테솔 자격증을 취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났네요. 요즘 기관에는 새터민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특강으로 영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선생님이 생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이들과 챈트, 노래, 간단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교사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하자면 우쿨렐레나 오카리나를 배워두면 좋습니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이동성이 있고, 연주하기가 쉬워서 배워두면 기관에서 외부로 나갈 때도 들고 나갈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서도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하여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 유치원에서 꼭 필요한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전민지 기자

이 상 훈 (방사선과 1)



1. 33살의 나이에 대학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컴퓨터 전공 관련 공부 중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전공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변하는 시대에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가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잠시 간호 관련 일은 하면서 우리대학교 졸업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송호대학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방사선과에 대한 학업적 욕구와 전문 지식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 앞으로 시작되는 대학 생활에 대한 목표와 같이 지내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의 목표는 별 탈 없이 무사히 졸업하는 것과 방사선면허 취득과 RI면허를 취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학우들아, 나이 많다고 불편하지 말고 편하게 친구처럼 때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친한 형, 오빠처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방사선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대학생활 서로 도우면서 졸업까지 잘 부탁한다.

김 진 기자

황 대 근 (호텔외식조리과 1)



1. 늦은 나이에 대학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베이컨 형님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급변하는 세상에 두려움이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나무만 보지만 기성세대인 우리는 숲을 봅니다. 미래는 젊은 층의 취향과 선호도를 잘 파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의 물결 '인간관계속의 감동' 즉 사람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과 함께 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는 우선 전공 지식을 토대로 식품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학우들을 많이 만나서 관계형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3. 함께 학교생활을 하게 될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첫째 인간관계 형성, 둘째 전공 습득, 셋째 인성확립, 넷째 긍정적사고, 적극적 행동, 능동적인 태도, 다섯째 낭만이 가득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허리케인 같은 사회를 이기려면 적어도 위에 명시한 다섯 가지만 꼭 가지고 있다면 해결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4. 아직도 망설이고 고민하는 예비 만학도에게 용기 내시라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비 만학도 여러분 도전 하십시오.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김 진 기자

캠퍼스 소개

새내기를 위한 우리대학교 캠퍼스 소개!

2017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다함께 캠퍼스 투어를 해 보자!

1. 송호관

송호관에는 학생들이 자주 찾는 교학처, 사무처, 입학처 등의 행정 부서가 있다. 이번에 방사선과 강의실과 실습실이 송호관으로 이동했으며, 이사장실, 총장실, 기획실, 세미나실, PC실, 뷰티케어과 강의실, 실습실, 학생생활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등이 있다. 뷰티케어과에서 송호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실습할 때는 송호관 3층을 찾으면 된다.

2. 창조관

창조관은 주로 유아교육과, 관광(대명)리조트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사용한다. 1층에는 유아교육과 강의실과 종합강의실이 있으며 무대공예실, 기악실, 동작실 등이 있고 우체국 ATM기도 자리하고 있다. 관광(대명)리조트과의 식음료 실습실과 객실 실습실, 어학실 등이 있다.

3. 보건과학관

우리대학교 건물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 보건과학관은 1,2층에는 간호과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으며, 3층에는 임상병리과, 4층에는 치위생과, 5층에는 보건행정과의 실습실이 있으며 6층에는 종합강의실이 있다. 또 각 층마다 보건계열 학생들의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독서실이 있다.

4. 도약관

도약관이 새롭게 단장했다. 도약관 1층에는 그라찌에(카페)와 여자학생들을 위한 파우더룸이 있으며 CU편의점이 있다. 또한 식권 및 승차권 발매기, 국민은행 ATM기가 있으며 우리대학교 대표 언론사인 송호신문사, 학생 대표 총학생회 회의실, 보건실 등이 있다. 2층에는 동아리실이 운영되며 3층에는 예배당이 있다. 예배당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5. 웰빙관

웰빙관에는 호텔외식조리과가 실습을 하며 수업할 수 있도록 동양조리실습실, 호텔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습실, 조리식품분석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물 앞에는 테라스가 있어 종종 호텔외식조리과에서 행사가 열릴 때 사용하고 있다.

6. 월계관

입학식, 졸업식 등의 큰 행사는 월계관에서 개최된다. 월계관은 체육관으로 주로 스포츠레저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며, 스포츠레저과 강의실, 스포츠레저과 실습실, 트레이닝실 등이 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월계관 후문에는 서울, 경기도권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버스가 대기한다.

7. 진선미관

진선미관 1층에는 구내식당과 농협ATM기, 식권 및 승차권 발매기 등이 있다. 2층에는 도서관, 열람실, 미디어실 등이 있으며 시험기간을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자리가 가득차서 24시간 개방한다. 도서관 안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복도에도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어 학생들이 자주 사용한다. 3층에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 기숙사가 있다.

8. 실습동

작은 체육관으로 쓰이고 있는 실습동이다. 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9.10. 예지원(남/여 기숙사)

예지원은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가 있다. 올해 초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 비기숙사생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주의 바란다.)

11. 대운동장

대운동장은 주로 스포츠레저과(축구부)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곳이며, 체육대회 발야구,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이 이루어진다. 밤에는 학생들이 산책삼아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번 농구장, 13번 주차장, 14번 분수대 연못, 15번 정문으로 배치되어 있다.

신혜진 기자



학과 탐방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임상병리과

임상병리사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의사가 아니다?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일수록 임상병리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대학교 임상병리과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기초로 학생들의 실기능력을 배양하고 임상병리사가 꼭 알아야 할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학기술의 이론과 실기를 연마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국민보건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임상병리과에 대해 알아보자.









1. 임상병리과는 어떤 과인가?

임상병리과는 의학과 생명과학을 접목하는 의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국민보건과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인체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원인, 경과 및 치유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중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학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임상병리학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 및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미래 지향적이며 창의적 현장 일체형을 통해 전공지식과 인성을 갖춘 전문보건의료인을 양성하고 국민보건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과입니다.

2. 실습 수업내용과 이론 수업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실습 수업내용은 주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기초로 하여 임상화학, 임상혈액학. 임상미생물학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실시하며, 실험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론 수업내용은 임상병리사가 꼭 알아야 할 임상화학, 미생물학, 혈액학, 조직검사학, 임상생리학,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면역혈청학, 기생충학, 분자유전학, 세포병리학, 기기분석학, 전산학개론 등 임상병리 전문분야의 이론을 교육하는 교과목을 이수합니다.

3. 임상병리과만의 차별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임상병리과는 폭넓은 학업 지식을 통하여 다양한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증이 있으면 병원이나 제약회사, 연구소 등 폭넓은 취업분야에 도전할 수 있으며 임상병리사, 세포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미국임상병리사(ASCP)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대학교 임사병리과에서는 졸업생 1인당 2개 면허증(임상병리사면허, 방사선동위원소추급자일반면허)과 1개의 자격증(힐링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합니다.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인성 및 CS 마인드를 갖춘 준비된 사회인을 배출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외 활동으로 글로벌 리더쉽을 갖춘 웰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현장실습을 활성화 하여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 주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 졸업 전 임상병리과 학생이 꼭 준비해야 할 자격증이 있다면?

임상병리사가 되려면 임상병리사 면허증 시험(국가고시)을 치러야 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증은 꼭 있어야 할 기본적인 면허증이므로 열심히 공부하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여러분이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에 임하면 졸업한 선배들보다 높고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대학교 임상병리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으로 보다 높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걸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같이 시작하는 동기들과 선배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세상,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 한가람 기자

우리대학교에 새로 오신 교수님 & 조교님



방사선과
김 갑 중 교수님

1.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전보건대 방사선과를 졸업해 영훈의료재단 대전 선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결혼하여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방사선과 김갑중 교수입니다. 임상에서 20년간 몸을 담고 대학교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 이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가진 저로서는 훌륭한 송호대학교와 좋은 인연이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가르치고자 합니다.

2. 교수님께서 가진 신념은 무엇입니까?
- 저는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수님의 바람이 그렇듯이 저 또한 학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방사선과 학생들에 대한 인상이 궁금한데요.
- 지금 학생들을 보면 저의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우리 대학교 방사선과 학생들을 보면 참 순수하고 밝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생들은 처음에는 긴장하더니 금세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지금은 우리대학교 방사선과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 방사선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 오늘날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습니다. 예전보다 취업의 문이 매우 좁아졌기 때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흐름에 맞춰서 자기계발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과 공부 못지않게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방사선과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돕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이 우리대학교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한 스펙을 사회의 트렌드에 맞게끔 열심히 하다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전민지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박 다 연 조교님

1. 간단한 자기소개
- 저는 여러분과 몇 학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언니, 누나뻘인 박다연 조교입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며 관공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근무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공학계열을 전공하였기에 취업 선택의 폭이 넓었고, 남들과는 달리 학교 근무 경력도 있었던 터라 요즘 들어 틈틈이 교육행정(지방행정)공부를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함께 병행 하고 있습니다.

2. 관광(대명)리조트과 조교님으로 오신 계기
- 우연한 행운으로 관광(대명)리조트과 행정조교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관련 전공 출신도 아니어서 저로서는 단순히 '행정 분야'로 지원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실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직접 부딪혀서 겪어볼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알고자 관광(대명)리조트과와 정식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3. 각오와 앞으로의 다짐
- 저는 이번 3월 1일자로 임용 되어 전임 조교님, 타 학과 조교님들, 학교 본관 각 부서별 선생님들로부터 매일 시간에 쫓기며 나름대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의 대한 의욕이 많아서 타 학과에 비해 업무적으로 뒤쳐지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을 깨우쳐 우리 과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싶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아직 학생들과 크게 친해질 만한 계기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제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더 다가가고 노력해야겠지요. 우선 1, 2학년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부터 하나씩 알아가야겠습니다. 솔직히 다들 예쁜 유니폼에 긴 생머리인 친구들이여서 당분간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답니다. 아직은 미숙한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관광(대명)리조트과 파이팅!

한가람 기자



치위생과
이 명 호 조교님

1.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호대학교에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는 치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 조교 이명호입니다.

2. 송호대학교에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 학창 시절 부터 활동적이고 도전정신이 투철하여 운동부에 입부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4년간 대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영업직, 콜센터, 주차장, 설문지, 홀서빙, 학원 강사, 살처분, 마케팅 기획 인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 했는데 대학원 진학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번 기회에 행정업무를 경험 하고자 치위생과 행정 조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조교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주된 업무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 하는 역할입니다. 사무작업 및 실습실 재고 관리, 학생 안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상담사 및 그림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 저희 치위생과 학생들은 지성과 인성, 미모를 겸비하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사랑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두에게 사랑 받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위생과 행정 조교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매우 행복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순간 부지런히 걷지 않게 되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라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임하여 후회하는 일 없도록 노력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혜진 기자

17학번 새내기의 각오 한마디

김 윤 지 (유아교육과 1)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윤지입니다. 올해 송호대학교와 다시금 인연을 맺게 되어서 새내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살에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고, 타 자격증 취득 관련 공부를 준비하여 사회에서 1년간 서비스직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 만나게 된 대부분의 지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학은 졸업해야한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될 때마다 유아교육 공부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기에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은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인 만큼 매 시간마다 수업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편이고, 그만큼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나 역량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유아교사로서 유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입학을 결심하여 힘들게 다시 되돌아온 만큼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서 성적장학금 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매년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황 수 린 (치위생과 1)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만큼 학교생활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선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공부, 교양공부 모두 열심히 하고 교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성적을 잘 받아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습니다. 치위생과는 멘토-멘티를 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학우와 선후배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김 은 경 (관광대명리조트과 1)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우리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대명)리조트과에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멋진 대명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나도 작가

자유시

진건

김 은 경 (대명리조트과 1)

여우내 마을에 가을이 와
가을 낙엽이 눈처럼 쌓였을 땐
언제나 멋진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다 져버린 뒤의 슬픈 무늬 낙엽 속에
내 슬픔과 고독을 묻을 순 없을까

옆 동네 별 마을에 그대 얼굴 별자리
낙엽을 발로 차 애써 가리지만
부스러기 흩날려 더욱 빛나게 만든다
내 슬픔도 고독도 흩어져 날리며
여우내 마을 별 마을에 가득 매워 버렸다.

오행시

송호대학교

이 상 훈 (방사선과 1)

[송] 송송~ 파 썰어 넣은 김치찌개
[호] 호~ 불어 한 숟가락 넣으면
[대] 접 가득 차 있던 밥이 사라진다
[학] 교 늦겠다~ 하는 어머님 말씀에
[교] 복을 입고 급히 나갔던 옛 추억

조 준 연 (방사선과 1)

[송] 글송글 맺힌 땀방울
[호] 를 넘기며 발간을 하고
[대] 학교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학] 생들에게 알리며
[교] 외로도 알리기 위해 오늘도 뛉니다.

송호신문에 본인의 글 게재를 희망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자유시, 도서추천, 감사의 편지, 여행기 등) 선정된 작품은 신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010-7277-1226 / minjee0621@naver.com

횡성 맛집 리스트

우리 신입생 학우를 위해서 선배들이 추천하는 횡성 맛집!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된다면 횡성 맛집 리스트!

가게명	전화번호	주 소	추천메뉴
왕십리해장국	033-344-5218	횡성읍 삼일로 65	뼈다귀 해장국
포도청해장국	033-345-9990	횡성읍 삼일로 71	뼈다귀 해장국
운동장해장국	033-345-1770	횡성읍 삼일로 79	한우해장국
돌섬 바지락칼국수	033-343-3212	횡성읍 북천동로 37	바지락 칼국수 얼큰이 칼국수
메이드	033-342-0843	횡성읍 성북동로 15	치킨도리아 고르곤졸라피자
설원칡냉면	033-344-8788	횡성읍 태기로 49	물냉면, 보쌈
만닭갈비	033-344-4242	횡성읍 한우로 277-6	닭갈비
벌집삼겹살	033-345-4895	횡성읍 읍하로 29	벌집삼겹살
대구꼴통막창	033-342-0009	횡성읍 읍하남로 25	생막창
하누&카누	033-344-0312	횡성읍 삼일로 10	횡성한우빵
오복장	033-343-5021	횡성읍 태기로 29	수요일 : 사천탕수육정식
김밥촌	033-344-5714	횡성읍 문정로 39-5	김밥 외 분식
이학정	033-343-7003	횡성읍 문화체육로 72	돼지고기 무한리필
대동정육점	033-343-6706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남로13번길 16	한우 모듬

송호마일리지 장학 제도, 학생들의 장학 기회 확대하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3월 2일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송호마일리지' 장학 사업을 실시한다.

'송호마일리지' 장학 제도는 성과형 장학제도로 학생자율주도형 교육참여 강화를 위해 자발적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초소양 향상, 기초·전공 능력 강화, 어학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학생 개인 역량 개발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1학기 송호마일리지 장학 안내		
▶ 사업기한	2017.03.02 ~2017.06.15	※ 사업기한 내 활동 점수만 인정
▶ 제출기한	2017.03.02 ~2017.06.26	※ 제출기한 내 서류제출 하는 경우만 인정
▶ 선정자공고일	2017.07.17	
▶ 장학금지급일	2017.08.10	

▶ 제출 장소 : 송호대학교 송호관 1층 행정지원실 교학처 장학담당자 제출
▶ 제출 시간 : 매주 금요일 13:00 ~ 17:00 까지

마일리지 취득 점수에 따라 도전 장학금, 전문 장학금, 창의 장학금, 명품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인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단, 동점자일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 순위에 의해 결정함.)

종 류	내 용	장학금액	선발인원			
			인문사회계열	보건계열	자연,예체능계열	
송호 명품 장학금	**60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우선 선발	80만원	3	5	1	9
송호 창의 장학금	**50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우선 선발	50만원	5	6	2	13
송호 전문 장학금	**40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우선 선발	30만원	10	15	10	35
송호 도전 장학금	**20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우선 선발	10만원	36	50	22	108
계			54	76	35	165

▶ 동점자 처리 순위
1순위 :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2순위 : 교내장학금 미수혜자
3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자 4순위 : 학업성적 우수자

※ 마일리지 배점표 : 송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 대학소개 – 송호소식 – 장학 및 학자금 – '2017학년도 1학기 송호마일리지 장학사업 시행계획 공고'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전민지 기자